

2010년 가을 학기
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8

복음서에서

(8)

유월절과 장막절

성경: 요 1:29, 6:4, 56-57, 7:2, 고전 5:7-8, 레 23:39-43

I.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이실 뿐 아니라 유월절의 모든 방면이시기도 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— 요 1:29, 6:4, 56-57, 출 12:11-14, 고전 5:7.

- A.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은 그 날, 우리는 새로운 출생, 새로운 시작 곧 ‘거룩한 달력’에 따른 우리의 나이가 시작되었다—출 12:2-3, 13:4.
- B. 어린양이 각 가정을 위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집, 곧 가족인 것을 계시한다—출 12:3-4, 눅 19:9, 행 11:14, 16:30-31.
- C. 유월절 어린양이 사 일 동안 검사를 받아 흠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검사를 받으셨고 온전하고 죄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—출 12:5-6, 요 8:7, 46, 18:38, 19:4, 6.
- D. 어린양이 일 년 된 것이어야 했다는 것은, 하나님의 눈에,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, 그 분은 신선하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쓰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계시한다—출 12:5, 히 10:5-10.
- E.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린양을 잡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양을 죽이는데 참여했다—출 12:6, 행 3:14-15, 요 19:20, 사 53:5-6.
- F. 유월절 어린양의 고기를 생명 공급으로 먹어야 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먹어야 한다—출 12:8-10, 요 6:53, 55-57.
 - 1. 사람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성취하려면 생명과 구속 둘 다 필요하다.
 - 2.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범리적인 구속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절차이다—롬 5:10.
- G. 어린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야 하고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된다—출 12:8-9.
 - 1. 불에 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거룩한 불 아래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—사 53:4, 10, 시 22:14-15, 요 19:28.
 - 2. 날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고 그분을 다만 모방해야 할 인생의 모범으로 여기는 것을 상징한다.
 - 3. 삶아서 먹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죽으신 것을 구속을 위한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를 위한 인간의 박해의 고난으로 여기는 것을 상징한다.
- H.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양을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함께 먹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하되 반드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활동과 움직임이심, 그분의 내적 애정과 느낌과 함께 그분 전체를 취해야 함을 상징한다—출 12:9.
- I. 어린양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은 것은 죄악 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에 대해 쓴 맛을 갖는 것을 상징한다—8 절.
- J.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어린양의 어떤 뼈도 꺾지 말아야 했다—46 절.
 - 1.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—요 19:33, 36.

2. 그리스도의 꺾어지지 않은 뼈는 그분의 꺾을 수 없고 파괴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안에 나누어 주는 그분의 생명을 상징한다—창 2:21-22.
- K. 이스라엘 자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린양을 먹어야 했다—출 12:11.
1.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, 곧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준다.
 2. 구속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유월절을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했다—17, 41, 51 절, 13:18.
- L. 그릇에 담긴 어린양의 피는 우슬초 묶음으로 그 집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졌다—12:22.
1.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우슬초는 분량에 있어서 가장 작은 믿음을 상징한다. 그리스도의 피는 이 처럼 작은 믿음에 의해 적용된다—왕상 4:33, 마 17:20.
 2. 어린양의 피가 커다란 그릇이 아닌 대야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우리에게 작고 적용하기 쉽게 통용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.
- M. 그리스도는 다만 어린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이실 뿐 아니라 구속하는 피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진 집이시다—고전 1:30, 엡 1:7.
1. 피는 집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—히 10:19, 출 12:13, 23.
 2.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가 그 문에 묻어 있는 집 안에 있으라는 요구를 받았다. 그들은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다—22.
 - a.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를 지속해야 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한다—요 15:5.
 - b. 구속하는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지킨다—요일 1:7, 9.
- N.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 명절의 연속으로 무교절을 칠일 동안 지켜야 했다—출 12:15-20, 13:6-7.
1.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교병, 곧 순수하시고 진실하시며, 온전히 순수하시고 섞인 것이 없으시며, 실재가 충만한, 죄 없는 생명의 공급이시다—고전 5:7-8.
 2.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누룩이 보여서는 안되었다.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죄, 나타난 죄, 즉 보이는 죄는 어떤 것이든 처리해야 함을 상징한다—출 13:7, 12:19, 고전 5:7 상, 히 12:1-2 상.
 3. 우리가 회심한 날부터 휴거의 날까지, 칠 일로 상징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우리의 잔치, 풍성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명절이어야 한다—출 12:16, 18-19.

II. 우리는 그리스도를 장막절로 누릴 수 있다—요 7:2, 레 23:39-43.

- A. 유월절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, 장막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적인 구원의 완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—요 6:4, 7:2, 레 23:5, 34.
- B.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어떻게 장막들(성막) 안에서 살았었는지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장막절을 정하셨다. 장막들이라는 단어는 기억의 사상을 함축한다—신 16:13-15.
- C. 이 명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좋은 땅에서 얻은 산물을 누리기 위해 함께 모인 것은 섞임의 참된 그림이다.
- D. 장막절의 실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는가를 기억하는 누림의 시간이다.
- E. 오늘날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, 곧 좋은 땅에서 얻은 산물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섞임을 위해서 단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—계 21:2-3.
- F.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들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면서 영원한 장막, 곧 하나님께서

건축하신 성,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고대하며 장막 안에서 어떻게 거했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이다—히 11:9-10, 13.

1.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,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는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—롬 4:12, 히 11:9, 창 12:7-8, 13:3-4, 18.
 - a. 제단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위하고,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, 우리의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—출 40:6, 29, 시 43:4 상, 레 1:3, 9.
 - b.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땅에서 체류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한다.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했다는 표현이자 선언이다—히 11:9-10, 15-16.
 2.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(갈 3:7)로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장막을 움직이고 치는 이 땅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한다(히 11:9, 13, 뱀전 2:11).
 3. 아브라함은 그의 첫 번째 제단(창 12:7)을 쌓은 후에, 서로 대비가 되어 서 있는 뱀엘과 아이의 중간 지점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다(8 절).
 - a. 뱀엘은 ‘하나님의 집’을 의미하고, 아이는 ‘폐허더미’를 의미한다.
 - b. 부르심을 받은 자의 눈으로 볼 때 오직 뱀엘, 곧 교회 생활만이 가치가 있다. 그 외에 모든 것은 폐허더미일 뿐이다.
 4. 아브라함에게는 실패 곧 제단과 장막을 버리는 실패가 있었다. 그러나 그에게는 회복이 있었다.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제단과 장막으로 돌아오는 문제이다—9-10 절, 13:3-4, 롬 10:12-13, 12:1-2.
 5.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 하는 장소, 하나님이 그와 교통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—창 13:18.
 6. 아브라함이 건축한 제단이 있는 그의 장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축한 제단이 있는 증거막의 예시이다—출 38:21.
 7. 나그네요 체류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,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다—히 11:9-10, 12-16.
 8. 아브라함의 천막은 궁국적인 천막, 하나님의 궁국적인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—창 9:26-27, 12:8, 13:3, 18:1, 계 21:2-3.
 9. 우리가 교회 생활의 ‘천막’ 안에서 생활 하며, 우리는 그 천막의 궁국적인 완결 곧 궁국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린다—딤후 3:15, 레 1:1, 히 11:10.
- G.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의 누림인데 먼저는 이기는 이들의 보상으로 천년 왕국 안에서 첫 열매로 완결되고, 그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온전하게 된 믿는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충만한 누림으로 최종 완결 될 것이다.